연구 자료

APEC지역의 농업생산과 농림수산물 교역

김 동 민* 어 명 근**

1. 서 론
2. APEC 개관
3. APEC 지역의 농업
4. APEC 지역의 농림수산물 무역
5.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간의 농림 수산물 교역
6. 결 론

1. 서 론

1989년 11월 호주에서 발족된 APEC은 12개 회원국들의 이질성과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역내 회원국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 수준의 성격을 띠고 출범하였다. 그후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APEC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미 클린턴 행정부 주도로 제1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고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1995년 11월 오오사카 제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어 예외없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미하는 '포괄성 원칙'과 함께 자유화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다양한 경제 환경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신축성의 원칙'을 동시에 명시하였다. 특히 농산물의 무역자유화에 대하여 한국, 일본 등 수입국과 미국, 호주 등 수출국간에 이견을 보이다가 정상회의 직전에 '신축성의 원칙'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제출할 국별 행동계획(Action Plan)에서 일단 농산물을 제외할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10년 혹은 2020년으로 결정된 APEC 무역·투자 자유화의 완료 시한을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원국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APEC 농산물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 책임연구원
** 부연구위원

으로 APEC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이해와 협상대응 그리고 정책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APEC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비농업 부문에 국한되어 농업부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과 문제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와같은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에 대비하여 APEC의 특징과 성격을 개관하고 APEC 회원국들의 농산물 생산, 소비와 교역, 그리고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들간의 농산물 교역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2. APEC 개관

2.1. APEC의 성격과 특징

APEC은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CER(호주, 뉴질랜드), ASEAN(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소지역 블럭을 포괄하는 동시에 한국, 대만, 홍콩 등 신흥 개도국과 미국, 일본이라는 경제 강대국 및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APEC은 구속력있는(Binding) 협정(Agreement)이나 제도보다는 상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Forum) 또는 회원국간 협의체(Consultation)의 형태를 지니며 그 성격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나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아닌 '협력회의' 또는 '협력체'로 표현된다.

또한 APEC은 EU나 NAFTA 등 역내 특혜적 경제통합체와는 달리 역내국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의해 얻어지는 특혜를 역내국은 물론 역외국에도 제공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어 '배타적 지역주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력 없는(Non-binding) 선언이나 합의, 국별 일방적(Unilataral) 조치에 의한 참여, 협의체적(Consultation) 성격의 타협 등 APEC이라는 조직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보고르 선언에 입각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이해와 득실이 상반되는 여러 국가간 합의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APEC의 특징은 첫째, 전세계 인구의 약 38%와 총생산의 58%, 그리고 총교역량의 4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일 뿐만 아니라 GDP성장률이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부존자원도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크고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미만(1993년 기준)인 개도국으로부터 3만 달러 이상인 국가까지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와 이질적인 경제구조를 갖는 국가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상호 보완적 관계와 동시에 경쟁적 관계 등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의 관계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세째,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상호 의존성은 점점 심화되어 역내국간 교역 의존도가 1980년 56.8%에서 1992년에는 68.5%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네째, APEC을 통한 경제협력은 EU처럼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인위적, 계획적 방식이 아니라 회의때마다 현안이 되는 안건에 대해

상호 이익에 따라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자연적 통합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2.2. APEC 지역의 경제, 인구, 국토이용 현황

APEC 회원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1만 달러 이상인 반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은 1천 달러에도 미달하여 극심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미국과 일본의 GNP는 각각 나머지 16개 회원국들의 GNP 합계보다 많아 경제력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율을 시현하고 있는 고성장 국가와 낮은 성장을 보이는 저성장 국가로 양분된다.

교역규모 역시 큰 차이를 보여 1조 달러가 넘는 미국과 6천억 달러의 일본을 합하면 나머지 회원국 전체의 교역액보다 큰 반면 파푸아뉴기니 등은 백억 달러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무역 의존도는 일본과 미국이 높은 교역액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관계로 1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중계 무역의 비중이 큰 홍콩과 싱가포르는 100% 이상으로 높으며 우리나라는 25%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이 약 1000억 달러로 가장 높으나 대만은 교역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 9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의 편재와 경제 발전 단계의 상이성은 회원국간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고 경쟁적인 국가간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예컨대 ASEAN과 중국은 단순 조립에 치중하고 한국, 대만은 최종 제품과 부품의 가공 및 조립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첨단산업 및 고도의 기술 집약적 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인구 역시 회원국간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인구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멕시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등이 4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 인구 비중은 개도국인 중국, 파푸아뉴기니, 태국 등이 약 60%로 높은 반면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과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5% 이하로 낮았다.

국토 면적 역시 회원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 면적중 산악국가인 파푸아뉴기니는 임야의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도 국토 면적의 약 60%가 임야로 되어 있다. 반면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토 면적 중 목초지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 멕시코도 약 40%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경지 비중은 논농사 중심의 태국, 필리핀이 30%를 상회하고 대만, 한국이 20%를 넘는 반면 산악 국가인 파푸아뉴기니,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과 낙농·축산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가 약 5%로 낮았다. 농경지 면적에 대한 관개면적 비중도 논농사 중심의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반면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규모 농업국과 낙농·축산국들이 낮았다.

표 1 APEC 역내 국가의 경제현황, 1993

	GNP (억달러)	1인당 GNP (달러)	경제성장률(%) (1981~90)	인구밀도[2)] (명/㎢)	소비자물가상승률 (1988~93)	교역액 (억달러)	수출	수입	무역의존도(%) 수출	무역의존도(%) 수입	외환보유고 (억달러)
한 국	3,308	7,513	9.5	440	6.90	1,660	822	838	25.0	25.5	203
						(3,769)	(1,867)	(1,902)			
일 본	42,549	34,103	4.3	329	2.31	6,039	3,622	2,416	8.5	5.7	997
						(4,833)	(2,899)	(1,934)			
중 국	5,469	457	9.4	124	3.50	1,941	910	1,031	16.6	18.8	230
						(161)	(75)	(86)			
대 만	2,226	10,677	8.5	582	3.91	1,618	847	771	38.6	35.0	893
						(7,724)	(4,043)	(3,681)			
홍 콩	1,147	19,385	14.5	5,406	9.74	2,739	1,352	1,387	123.2	126.3	
						(46,861)	(23,139)	(23,722)			
미 국	63,478	24,643	2.7	27	4.09	10,682	4,648	6,034	7.3	9.5	616
						(4,143)	(1,803)	(2,340)			
캐 나 다	5,329	18,537	2.8	3	3.73	2,842	1,452	1,390	27.2	26.1	128
						(10,240)	(5,231)	(5,009)			
멕 시 코	2,800[1]	3,188[1]	0.9	46	18.76	804	302	501	9.8[1]	13.6[1]	251
						(893)	(336)	(557)			
호 주	2,725	15,429	3.2	2	4.12	883	427	456	15.7	16.7	142
						(4,949)	(2,394)	(2,554)			
뉴질랜드	420	12,127	1.8	13	3.31	202	105	96	25.1	23.0	33
						(5,785)	(3,022)	(2,763)			
태 국	1,086[2]	1,880[2]	8.1	113	4.93	829	368	461	29.9[2]	37.5[2]	254
						(1,457)	(647)	(810)			
말레이지아	613	3,183	5.9	57	3.61	928	471	457	76.9	74.5	274
						(4,822)	(2,449)	(2,373)			
싱가포르	558	19,458	6.8	4,560	2.78	1,592	740	852	132.5	152.6	484
						(56,914)	(26,452)	(30,462)			
인도네시아	1,370	724	5.2	100	8.07	617	336	281	24.5	20.5	124
						(317)	(173)	(144)			
필 리 핀	560	853	1.5	214	12.23	298	111	188	19.8	33.5	59
						(448)	(167)	(282)			
부루나이	41[1]	15,875[1]									
P N G	44[2]	1,144[2]	1.5	8	5.52	38	25	13	41.1[2]	33.7[2]	2
						(913)	(600)	(313)			
칠 레	421	3,051	2.7	18	18.36	203	92	111	21.8	26.4	103
						(1,472)	(666)	(805)			

주 : ( )는 1인당 수치로서 단위는 달러임.

[1] 1991년치임.

[2] 1992년치임.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csfics」, 1995.
World Bank, 「The World Bank Atlas」, 1993.

3. APEC 지역의 농업

3.1. APEC 지역의 농업 현황

국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 인구의 비중은 후발 개도국인 파푸아뉴기니,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높은 반면 도시 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낮았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과 농업인구 비중은 5% 이하로 낮았으나 농림수산물 교역액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있다(표 2 참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과 농업인구 비중이 9%에 불과하지만 농림수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에 달하고 있어 농림수산물 수출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밖에 농림수산물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약 40%), 호주(약 30%), 태국, 인도네시아, 캐나다(각각 20%) 등이며 미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은 약 14%로 전체 수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약 25%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 한국, 인도네시아가 10%를 상회하고 있다. 호당 경지면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ha 내외의 국가가 다수 있는 반면 호주와 미국 그리고 뉴질랜드는 100ha 이상으로 넓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APEC 회원국간에 상당한 이질성과 격차를 보이고 있어 무역·투자자유화에서 농업부문의 예외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APEC지역의 농산물 생산 및 소비현황

3.2.1. 농산물 생산 현황

APEC 회원국의 농산물 생산은 1991~93년 평균 세계 곡물, 채소류, 육류 생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과일류는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육류의 생산은 1979~81년 대비 연평균 4%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APEC 지역의 육류 생산 비중이 전세계 육류 생산의 40%에서 47%로 증가하였다.

APEC 회원국의 1991~93 평균 곡물생산은 919백만톤이나 중국(402백만톤)과 미국(298백만톤)이 역내 생산의 76%를 차지하는 동시에 전세계 생산량의 37%를 차지하였다. 채소류와 육류 역시 중국과 미국이 역내생산의 76%를 차지함과 동시에 전세계 생산량의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나라의 농산물 생산이 APEC은 물론 전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APEC 지역의 곡물 식부면적은 1993년에 전세계의 33.4%였으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47.1%로 높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았다. 1인당 농산물 생산은 곡물류가 캐나다(1877kg), 호주(1616kg), 미국(1010kg)이 월등이 높고 육류는 뉴질랜드(345kg), 호주(187kg), 미국(121kg)이 높았다.

품목별 APEC 지역의 생산비중은 옥수수가 65%, 돼지고기가 64%, 대두가 60%,

표 2 APEC 역내 국가의 농업현황, 1993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 (%)	농업인구 비중(%)	농 가 수 (천호)	호당경지 면 적 (ha)	소득에서 차지하는 식품비중 (%)	자급률(1998)(%)		농림수산물 교역액(백만달러)		
						쌀	육류		수출	수입
한 국	8	19.7	1,720	1.23	29	96.8[2]	90.9[2]	12,876	9,798	3,078
								(7.8)	(11.7)	(3.7)
일 본	3	5.2	3,834	1.4	11	93.9	73.3	62,951	59,032	3,919
								(10.4)	(24.4)	(1.1)
중 국	24	65.2	228,490	0.41	55			29,927	14,006	15,921
								(8.4)	(7.7)	(9.0)
대 만	4	19.1	798	1.1	24			6,642	3,158	3,484
								(4.1)	(4.1)	(4.1)
홍 콩	0.3	1.0			8			17,759	11,544	6,215
								(6.5)	(8.3)	(4.6)
미 국	2	2.3	2,105	193	7	172.2	97.2	115,269	51,543	63,726
								(0.8)	(8.5)	(13.7)
캐 나 다	3[1]	2.8				1.5	115.4	41,010	10,489	30,521
								(14.8)	(8.0)	(21.0)
멕 시 코	8[1]	28.1						10,951	697	4,034
								(13.6)	(13.8)	(13.3)
호 주	3	4.5	122	3,818	8	781.6	176.4	15,676	3,509	12,167
								(18.5)	(8.4)	(28.5)
뉴질랜드	9	8.6	80	217	8	0	362.5	7,822	957	6,865
								(38.3)	(9.8)	(64.6)
태 국	12	58.4	5,244	28	19			13,870	4,319	9,551
								(17.0)	(9.6)	(26.2)
말레이지아	17[1]	27.9						12,035	3,325	8,710
								(13.0)	(7.3)	(18.5)
싱가포르	0.2	0.9			10			10,731	6,150	4,581
								(6.7)	(7.2)	(6.2)
인도네시아	19	41.8						12,042	2,941	9,101
								(18.5)	(10.4)	(24.7)
필 리 핀	21	45.0	9,725	2.83	39			3,704	1,788	1,916
								(12.3)	(9.5)	(17.0)
부루나이	2	-						185	177	8
								(5.1)	(14.8)	(0.3)
P N G	26	63.9						774	260	514
								(20.6)	(20.0)	(21.0)
칠 레	9[1]	11.9						4,555	796	3,759
								(22.6)	(7.4)	(39.9)

주 : ( )는 1인당 수치로서 단위는 달러임.
[1] 1991년치임.
[2] 1992년치임.

자료 : USDA, 「Asia and Pacific Rim」, 1994.
UNCTAD, 「국내교역 및 개발통계」, 1994.
FAO, 「Production Yearbook」, 1994.
FAO, 「Trade Yearbook」, 1994.

쌀이 55%로 높은 반면 우유가 26%로 다른 품목에 비해 낮다. 국가별 밀 생산은 중국(105백만톤), 미국(65백만톤), 캐나다(28백만톤) 등이 APEC 역내 생산량의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동시에 전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밀 생산량은 호주와 캐나다가 1,000kg으로 세계 평균의 약 10배 정도 높다. 동양인의 주식으로 간주되는 쌀 생산은 중국(187백만톤)이 역내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48백만톤)와 태국(19백만톤)도 주요 생산국이나 1인당 생산량은 태국이 336kg으로 가장 높다. 쌀 생산의 특징으로 주목할 점은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쌀생산의 9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밀에 비해 작황의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161백만톤)과 중국(103백만톤)이 역내 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작황이 국제 가격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쇠고기는 미국이 역내 생산량의 58%를 생산하고 있으나 1인당 생산량은 뉴질랜드(159kg)와 호주(103kg)가 높다. 초지 비율이 높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목초 비육 쇠고기인 반면 미국은 곡물 비육 쇠고기의 비중이 높아 고급육 쇠고기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돼지고기는 전통적으로 선호가 큰 중국이 역내 생산의 60%를 생산하고 있으나 1인당 생산량은 대만(54kg)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유는 미국이 역내 생산의 59%를 생산하고 있으나 1인당 생산량은 뉴질랜드(2422kg)가 단연 높다.

3.2.2. 농산물 소비현황

APEC 회원국들의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는 쌀의 경우 주식인 아시아 지역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식이 아닌 국가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아시아 지역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라 쌀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아시아 이민 증가와 인구 구성의 변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쌀 가공품 소비의 증가 등으로 쌀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최근 연평균 4.2%의 빠른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호주는 1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밀의 세계 평균 소비량은 안정적이나 APEC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쌀이 주식인 아시아국가에서 쌀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밀가루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품 소비패턴이 다양해지고 서구화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료곡물과 옥수수의 소비량은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을 억제하고 있어 사료 곡물의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득증가율이 높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육류와 수산물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상호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많은 일본, 한국 등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 육류의 소비가 낮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품 소비패턴의 서구화로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 중국, 필리

표 3 APEC 지역의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량 현황

단위 : kg/1인

	쌀		밀		사료곡물		옥수수		대두	
	'85	'93	'85	'93	'85	'93	'85	'93	'85	'93
한국	142.3	119.1 (-2.2)	77.1	132.6 (7.0)	111.9	141.2 (2.9)	90.1	130.2 (4.7)	29.9	30.4 (0.2)
일본	84.1	75.4 (-1.4)	51.3	52.1 (0.2)	178.0	175.8 (-0.2)	119.0	131.9 (1.3)	41.9	40.2 (-0.5)
중국	114.3	106.2 (-0.9)	93.8	91.8 (-0.3)	78.4	89.7 (1.7)	61.4	62.5 (0.2)	8.9	11.9 (3.7)
대만	99.4	70.4 (-4.2)	38.7	43.8 (1.0)	227.9	294.2 (3.2)	168.5	267.5 (5.9)	82.7	120.1 (4.8)
홍콩	55.9	67.6 (2.4)	43.6	67.6 (5.6)	64.1	13.0 (-18.1)	64.1	13.0 (-18.1)	3.3	2.9 (-1.6)
미국	7.5	12.5 (6.6)	120.0	131.0 (1.1)	715.4	721.8 (0.1)	561.0	620.6 (1.3)	129.9	145.0 (1.4)
캐나다	4.2	6.8 (6.2)	222.3	339.1 (5.4)	735.1	681.5 (-0.9)	265.6	238.8 (-1.3)	37.9	51.1 (3.8)
멕시코	5.4	5.4 (0.0)	61.4	60.4 (-0.2)	241.9	320.0 (3.6)	158.6	238.0 (5.2)	21.7	32.7 (5.3)
호주	4.8	15.9 (16.2)	181.4	232.1 (3.1)	191.4	308.5 (6.1)	10.6	14.9 (4.3)	6.7	7.8 (1.9)
뉴질랜드	-	-	110.3	131.8 (2.3)	220.8	166.9 (-3.4)	63.1	49.8 (-2.9)	-	-
태국	168.5	149.5 (-1.5)	3.5	12.3 (17.0)	25.7	55.9 (10.2)	24.8	52.8 (9.9)	5.9	10.5 (7.5)
말레이지아	97.0	84.5 (-1.7)	37.6	54.2 (4.7)	77.2	105.5 (4.0)	77.2	105.5 (4.0)	14.8	24.5 (6.5)
싱가포르	102.8	82.2 (-2.8)	58.6	64.3 (1.2)	122.4	28.6 (-16.6)	122.4	28.6 (-16.6)	7.4	11.8 (6.0)
인도네시아	161.1	170.4 (0.7)	8.1	13.8 (6.9)	27.3	31.1 (1.6)	27.3	31.1 (1.6)	7.6	12.3 (6.2)
필리핀	105.5	101.1 (-0.5)	14.4	33.3 (11.0)	71.4	76.3 (0.8)	71.4	76.3 (0.8)	0.4	1.7 (19.8)
부루나이	97.3	112.3 (1.8)	-	-	-	-	-	-	-	-
PNG	31.8	38.6 (2.5)	15.9	29.6 (8.1)	-	-	-	-	-	-
칠레	10.0	8.9 (-1.4)	142.1	141.2 (-0.1)	79.6	121.3 (5.4)	61.9	95.4 (5.6)	0	0
세계전체	65.4	64.2 (-0.2)	101.0	101.1 (0.0)	158.2	149.3 (-0.7)	87.3	91.0 (0.5)	19.1	21.8 (1.7)

주 : ( )는 1985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USDA

핀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 역시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의 세계 전체 소비가 연평균 1.8%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에서는 6~7%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육류의 소비가 높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지방이 적은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하는 대신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소비가 감소 내지 정체되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쇠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아시아국가로 수출 확대를 꾀하기 위해 APEC의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쇠고기의 소비가 고급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냉장수입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역내 쇠고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4. APEC 지역의 농림수산물 무역

4.1.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APEC 지역의 전체 교역액은 세계 전체 교역액의 4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38.9%에 불과하였다. 농림수산물의 교역액은 미국(1153억 달러)이 가장 많고 전체 교역액중 농림수산물 교역액의 비중은 뉴질랜드가 38.3%로 가장 높았다.

APEC 회원국들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흑자국은 캐나다(200억 달러), 미국(122억 달러), 호주(87억 달러), 인도네시아(62억 달러), 뉴질랜드(59억 달러), 말레이지아(54억 달러), 태국(52억 달러) 등이며 적자국은 일본(551억 달러), 한국(67억 달러), 홍콩(53억 달러), 멕시코(29억 달러), 싱가포르(16억 달러) 등이다(표 4 참조).

농림수산물 교역의 최대 흑자국인 캐나다는 대부분의 흑자가 임산물(163억 달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곡물류(26억 달러)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과채류(21억 달러)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수산물(31억 달러)과 임산물(37억 달러) 교역이 적자이나 농산물(190억 달러)중 곡물류(105억 달러)에서 큰 흑자를 보이고 있어 곡물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임산물(8억 달러) 교역이 적자이나 육류(26억 달러)와 곡물류(20억 달러)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육류(16억 달러)와 유제품(14억 달러)에서 많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태국은 수산물(26억 달러), 과채류(15억 달러), 곡물류(12억 달러), 말레이지아(32억 달러)와 인도네시아(38억 달러)는 임산물 교역에서 각각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최대 적자국인 일본은 농산물(302억 달러)과 수산물(134억 달러), 임산물(114억 달러) 등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무역수지가 1,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여 농림수산부문의 무역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수산물(9억 달러)교역만이 흑자일 뿐 농산물(55억 달러)과 임산물(21억 달러) 교역의 적자가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표 4 APEC 역내 국가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1993

단위 : 백만불, %

	전체(B)	농림수산 (C)	농산물(D)	육 류	유제품	곡물류	과채류	수산물 (E)	임산물 (F)	C/B
한 국	-1,564	-6,720	-5,503 (81.9)	-325	-45	-1,377	-172	861 (-12.8)	-2,078 (30.9)	429.7
일 본	120,665	-55,113	-30,194 (54.8)	-6,815	-580	-4,349	-4,757	-13,420 (24.3)	-11,499 (20.9)	-45.7
중 국	-4,330	1,915	3,629 (189.5)	1,499	-277	-456	2,152	1,698 (88.7)	-3,412 (-178.2)	-44.2
대 만	7,136	326								4.6
홍 콩	-3,399	-5,329	-3,447 (64.7)	-548	-218	-273	-849	-8.27 (15.5)	-1,056 (19.8)	156.8
미 국	-138,711	12,183	18,996 (155.9)	1,394	127	10,515	-173	-3,114 (-25.6)	-3,697 (-30.3)	-8.8
캐 나 다	14,009	20,032	2,313 (11.5)	236	-30	2,561	-2,053	1,394 (7.0)	16,326 (81.5)	143.0
멕 시 코	-19,906	-2,883	-2,277 (79.0)	-745	-641	-974	1,439	222 (-7.7)	-828 (28.7)	14.5
호 주	844	8,658	9,238 (106.7)	2,608	665	1,991	292	218 (2.5)	-798 (-9.2)	1025.8
뉴 질 랜 드	843	5,908	4,229 (71.6)	1,621	1,409	-61	447	589 (10.0)	1,091 (18.5)	700.8
태 국	-8,729	5,232	3,898 (74.5)	427	-177	1,244	1,470	2,574 (49.2)	-1,240 (-23.7)	-59.9
말 레 이 지 아	1,473	5,385	2,173 (40.4)	-95	-195	-519	-123	-5 (-0.1)	3,219 (59.8)	365.6
싱 가 포 르	-11,222	-1,569	-1,213 (77.3)	-189	-177	-181	-508	-85 (5.4)	-272 (17.3)	14.0
인 도 네 시 아	8,495	6,160	1,266 (20.6)	4	-119	-446	164	1,073 (17.4)	3,821 (62.0)	72.5
필 리 핀	-7,498	128	-114 (-89.1)	-32.9	-272.7	-407	526	383 (299.2)	-141 (-110.2)	-1.7
부 루 나 이	1,200	-169								-14.1
P N G	1,155	254	35 (13.8)	-68.3	-16	-59	-11	-21 (-8.3)	240 (94.5)	22.0
칠 레	-1,355	2,963	842 (28.4)	55	46	96	-986	1,106 (37.3)	1,015 (34.3)	-218.7
APEC합계(A)	-40,894	-2,639	3,871 (-146.7)	-974.2	-500.7	7,305	12,418	-7,354 (278.7)	691 (-26.2)	6.5
세계전체(G)	-42,888	-35,147								82.0
A/G	95.4	7.5								

주 : ( )는 농림수산물에 대한 비중임.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1993.

4.2. 농림수산물 수출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미국(637억 달러); 캐나다(305억 달러), 중국(159억 달러), 호주(122억 달러) 순이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뉴질랜드(65%), 칠레(40%), 호주(29%), 태국(26%), 인도네시아(25%) 순으로 이들 국가의 경우 농림수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농림수산물 수출중 농산물 비중은 호주와 멕시코가 90%, 미국, 중국, 필리핀이 70%를 상회하고 있어 농산물이 수출 전략산업임을 알 수 있다. 1981~83년 대비 1991~93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칠레가 약 15%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과 태국은 수산물 수출비중이 약 40%로 나타났으며 특히 태국의 연평균 수산물 수출증가율은 21%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파푸아뉴기니의 임산물 수출비중은 약 40~60%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임산물 수출증가율이 16%로 높았다.

농산물중 육류의 수출은 미국(44억 달러), 호주(26억 달러), 중국(18억 달러), 뉴질랜드(16억 달러), 캐나다(11억 달러)가 많았으며 특히 미국의 연평균 육류 수출증가율이 12%로 나타났다. 유제품 수출액은 뉴질랜드(14억 달러)가 많으며 곡물류 수출액은 미국(121억 달러), 캐나다(32억 달러), 호주(21억 달러)순이나 곡물류의 경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캐나다와 호주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22%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수출보조금 정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과채류 수출액은 미국(64억 달러), 중국(26억 달러), 멕시코(19억 달러), 태국(16억 달러)순이나 멕시코의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2%로 높아 과채류가 멕시코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농림수산물 수입

APEC 지역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일본(590억 달러), 미국(515억 달러) 순인 반면 전체 수입액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24%), 파퓨아뉴기니(20%), 브루나이(15%), 멕시코(14%), 한국(12%) 순이다(표 6 참조). 농산물 수입액은 일본(317억 달러), 미국(288억 달러), 중국(86억 달러)이 많으나 과거 10년간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태국(14%), 한국(9%), 홍콩(9%) 등이다.

특히 그동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 국가의 수입증가율이 높으며 NAFTA 회원국들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CER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도 '산업내 무역'의 증가로 인해 5% 내외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APEC을 통해 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소지역블럭에 소속되어 향후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지역블럭간 농산물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의 수입액은 일본(142억 달러), 미국(63억 달러)이 많지만 10년간 연평균 수

표 5 APEC 역내 국가의 농림수산물 수출현황, 1993

단위 : 백만불, %

	전체(B)	농림수산 (C)	농산물(D)	육 류	유제품	곡물류	과채류	수산물 (E)	임산물 (F)	C/B
한 국	82,236	3,078	1,099 (35.7)	82	1	77	223	1,360 (44.2)	619 (20.1)	3.7
일 본	362,666	3,919	1,526 (38.9)	19	2	305	110	767 (19.6)	1,626 (41.5)	1.1
중 국	176,695	15,921	12,198 (76.6)	1,760	60	1,662	2,635	2,818 (17.7)	905 (5.7)	9.0
대 만	84,197	3,484								4.1
홍 콩	134,966	6,215	4,622 (74.4)	187	105	107	562	573 (9.2)	1,019 (16.4)	4.6
미 국	464,767	63,726	47,795 (75.0)	4,374	705	12,053	6,374	3,182 (5.0)	12,750 (20.0)	13.7
캐 나 다	145,381	30,521	10,273 (33.7)	1,086	136	3,209	620	2,081 (6.8)	18,167 (59.5)	21.0
멕 시 코	30,241	4,034	3,585 (88.9)	38	8	73	1,850	295 (7.3)	154 (3.8)	13.3
호 주	42,727	12,167	11,108 (91.3)	2,631	768	2,094	616	578 (4.8)	481 (4.0)	28.5
뉴 질 랜 드	10,622	6,865	4,944 (72.0)	1,643	1,415	31	592	624 (9.1)	1,297 (18.9)	64.6
태 국	36,415	9,551	5,991 (62.7)	434	27	1,479	1,609	3,404 (35.6)	156 (1.6)	26.2
말 레 이 지 아	47,095	8,710	4,842 (55.6)	15	78	109	188	165 (1.9)	3,704 (42.5)	18.5
싱 가 포 르	73,952	4,581	3,410 (74.4)	38	89	147	290	482 (10.5)	688 (15.0)	6.2
인 도 네 시 아	36,823	9,101	3,619 (39.8)	21	5	100	296	1,179 (13.0)	4,304 (47.3)	24.7
필 리 핀	11,259	1,916	1,359 (70.9)	0.1	0.3	18	600	478 (24.9)	79 (4.1)	17.0
부 루 나 이	2,400	8								0.3
P N G	2,452	514	254 (49.4)	0.7			0.1	14 (2.7)	246 (47.9)	21.0
칠 레	9,416	3,759	1,540 (41.0)	79	63	162	56	1,125 (29.9)	1,094 (29.1)	39.9
APEC합계(A)	1,754,310	188,070	118,165 (62.8)	12,407.8 (10.2)	3,462.3	21,626	32,181	19,125	47,289 (25.1)	10.7
세계전체(G)	3,726,443	469,596								12.6
A/G	47.1	40.0								

주 : ( )는 농림수산물에 대한 비중임.

자료 : FAO, 「Trade Yearbook」, 1993.

표 6 APEC 역내 국가의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1993

단위 : 백만불, %

	전체(B)	농림수산 (C)	농산물(D)	육 류	유제품	곡물류	과채류	수산물 (E)	임산물 (F)	C/B
한 국	83,800	9,798	6,602 (67.4)	407	46	1,454	395	499 (5.1)	2,697 (27.5)	11.7
일 본	242,001	59,032	31,720 (53.7)	6,834	582	4,654	4,867	14,187 (24.0)	13,125 (22.2)	24.4
중 국	181,025	14,006	8,569 (61.2)	261	337	2,118	483	1,120 (8.0)	4,317 (30.8)	7.7
대 만	77,061	3,158								4.1
홍 콩	138,365	11,544	8,069 (69.9)	735	323	380	1,411	1,400 (12.1)	2,075 (18.0)	8.3
미 국	603,478	51,543	28,799 (55.9)	2,980	578	1,538	6,547	6,296 (12.2)	16,447 (31.9)	8.5
캐 나 다	131,372	10,489	7,960 (75.9)	850	166	648	2,673	687 (6.5)	1,841 (17.6)	8.0
멕 시 코	50,147	6,917	5,862 (84.7)	783	649	1,047	411	73 (1.1)	982 (14.2)	13.8
호 주	41,883	3,509	1,870 (53.3)	23	103	103	324	360 (10.3)	1,279 (36.4)	8.4
뉴 질 랜 드	9,779	957	715 (74.7)	22	6	92	145	35 (3.7)	206 (21.5)	9.8
태 국	45,144	4,319	2,093 (48.5)	7	204	235	139	830 (19.2)	1,396 (32.3)	9.6
말 레 이 지 아	45,622	3,325	2,669 (80.3)	110	273	628	311	170 (5.1)	485 (14.6)	7.3
싱 가 포 르	85,174	6,150	4,623 (75.2)	227	266	328	798	567 (9.2)	960 (15.6)	7.2
인 도 네 시 아	28,328	2,941	2,353 (80.0)	17	124	546	132	106 (3.6)	483 (16.4)	10.4
필 리 핀	18,757	1,788	1,473 (82.4)	33	273	425	74	95 (5.3)	220 (12.3)	9.5
부 루 나 이	1,200	177								14.8
P N G	1,297	260	219 (84.2)	69	16	59	11	35 (13.5)	6 (2.3)	20.0
칠 레	10,771	796	698 (87.7)	24	17	66	1,042	19 (2.4)	79 (9.9)	7.4
APEC합계(A)	1,795,204	190,709	114,294 (59.9)	13,382	3,963	14,321	19,763	26,479 (13.9)	46,598 (24.4)	10.6
세계전체(G)	3,769,331	504,743								13.4
A/G	47.6	37.8								

* : ( )는 농림수산물에 대한 비중임.

자료 : FAO, 「Trade Yearbook」, 1993.

입증가율은 태국(41%), 한국(27%)이 높았다. 이는 태국의 경우 가공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한국은 국내 어자원 고갈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임산물 수입액은 미국(165억 달러), 일본(131억 달러), 중국(43억 달러), 한국(27억 달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홍콩(15%)과 한국(13%)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중 육류 수입액은 일본(68억 달러)과 미국(30억 달러)이 많았지만 10년간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28%), 태국(20%), 한국(17%) 순이다. 특히 APEC 지역의 10년간 연평균 육류 수입증가율은 10%로 다른 농산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고성장 국가의 수입증가율은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유제품 수입액은 멕시코, 미국, 일본이 약 6억달러로 많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16%), 멕시코(10%), 싱가포르(9%), 태국(8%)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육류처럼 아시아 국가에서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곡물류 수입액은 일본(47억 달러), 중국(21억 달러), 미국(15억 달러)이 많으며 수입증가율은 미국(17%), 뉴질랜드(14%), 태국(13%), 호주(11%)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곡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인 것은 '산업내 무역'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채류 수입액은 미국(65억 달러), 일본(49억 달러), 캐나다(27억 달러) 순이지만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한국(26%), 태국(17%), 호주(12%)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간의 농림수산물 교역

우리나라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시장인 일본(17억 달러)과 홍콩(1.5억 달러)을 제외한 대부분의 APEC 회원국에 대해 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적자국은 미국(17억 달러), 중국(10억 달러),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지아(7억 달러), 호주(5.5억 달러), 캐나다(3.5억 달러), 뉴질랜드(3.4억 달러) 등이며 수입품목은 곡물류, 원목, 쇠고기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APEC 교역의존도는 전 산업 평균이 69~77%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농림수산부문은 82~90%나 되어 APEC 무역·투자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그 파장이 비농업부문에 비해 농림수산부문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별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미국(19억 달러), 중국(11억 달러),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지아(7억 달러), 호주(6억 달러), 캐나다(3.8억 달러), 뉴질랜드(3.4억 달러), 태국(2.4억 달러) 순으로 많으며 1987년 대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뉴질랜드가 46%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호주, 칠레, 중국 등도 30% 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수입증가율은 1987년 대비 17.2%로 전체 수입증가율 12.6%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농림수산물 수출증가율은 0.9%에 머물

러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APEC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일본(19억 달러), 미국(2억 달러), 홍콩(1.5억 달러)순으로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높으나 절대액은 거의 정체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APEC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계측하기 위해 수출입집중도 지수(Index of Intensity of Trade)를 이용할 수 있다 (표 7, 8 참조)[1].

$$\text{수출집중도} = \frac{X_{ij}}{X_i} / \frac{X_j}{X}$$

$$\text{수입집중도} = \frac{M_{ij}}{M_i} / \frac{M_j}{M}$$

여기서 X_{ij} :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

X_i : i국의 총수출

X_j : j국으로의 세계총수출(j국의 총수입)

X : 세계전체의 총수출

M_{ij} : i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

M_i : i국의 수입

M_j : j국으로부터의 세계총수입 (j국의 총수출)

M : 세계전체의 총수입

위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집중도는 i국의 총수출에서 j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전체의 총수출액에서 j국으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어떤 품목의 수출집중도가 1보다 크다면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은 전세계 평균보다 높아서 수출이 j국으로 집중되어 i국의 수출시장으로서 j국의 중요성(상대적 수출의존도)이 큼을 의미하며 수출집중도가 1보다 작다면 i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j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아 i국의 수출시장으로서 j국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음을 뜻한다. 따라서 수출집중도가 1이라면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액의 상대적 크기는 다른 나라들이 j국에 수출하는 비율과 동일하여 상대적인 수출의존도가 세계평균과 같다.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간의 농림수산물 수출집중도는 전체 수출집중도에 비해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는 같거나 낮아서 APEC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부문의 수출 증대효과가 비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집중도가 1보다 훨씬 높은 5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세계 평균에 비해 일본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대만과 홍콩에 대한 수출집중도는 약 2로 다소 높으며 대만의 경우는 1991년 4.6에서 1993년 2로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1992년 한·중수교에 따라 사과와 배 등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그밖의 국가에 대한 수출집중도는 1보다 낮아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물의 수입집중도는 대만, 홍콩,

[1] 손병해(1988)는 "Index of Intensity of Trade"를 "수출입결합도"라고 표현하였으나 정의상 "수출입집중도"가 더 합당한 표현임. 손병해, 「경제통합론」 1988, pp. 223-4 참조.

표 7 우리나라와 APEC 국가간의 수입집중도 추이, 1987~93

	1987		1989		1991		1993	
	전 체	농림수산물	전 체	농림수산물	전 체	농림수산물	전 체	농림수산물
일 본	3.69	4.31	3.28	2.80	2.97	2.89	2.48	3.15
중 국	0.73[1]	1.53[1]	0.74	2.08	1.03	3.93	1.00	4.28
대 만	0.88	0.85	1.03	2.07	0.88	2.14	0.75	0.57
홍 콩	0.51	0.34	0.41	0.17	0.35	0.13	0.13	0.04
미 국	2.15	4.01	2.26	3.32	1.98	2.48	1.74	1.95
캐 나 다	0.63	1.82	0.74	0.27	0.66	0.50	0.52	0.80
멕 시 코	0.55	0.11	0.37	0.03	0.36	0.12	0.24	0.16
호 주	3.36	1.20	3.27	2.46	3.24	3.07	3.52	3.05
뉴 질 랜 드	1.51	0.83	1.77	1.26	2.35	2.97	2.42	3.24
태 국	0.92	2.01	1.07	2.41	0.87	2.14	0.67	1.60
말레이지아	3.79	10.51	3.16	5.81	2.41	6.46	1.86	5.15
싱 가 포 르	0.94	0.73	0.74	0.59	0.77	0.39	0.94	0.24
인도네시아	3.01	3.26	2.65	3.42	3.12	4.14	3.16	5.04
필 리 핀	1.35	1.93	1.35	2.18	1.62	5.75	1.27	3.61
부 루 나 이	6.71	0	7.18	0	5.20	0	5.12	0
P N G	-	-	6.19	11.00	4.40	9.53	5.82	19.23
칠 레	2.07	1.71	2.11	1.33	1.82	1.24	2.57	2.36

[1] 1988년도 수치임.

표 8 우리나라와 APEC 국가간의 수출집중도 추이, 1987~93

	1987		1989		1991		1993	
	전 체	농림수산물	전 체	농림수산물	전 체	농림수산물	전 체	농림수산물
일 본	2.97	5.89	3.16	4.77	2.54	5.45	2.17	5.40
중 국	0.71[1]	0.15[1]	0.64	0.19	0.39	0.14	1.29	0.43
대 만	0.84	2.26	1.24	3.44	1.26	4.59	1.35	2.05
홍 콩	2.42	1.75	2.32	2.23	2.32	2.69	2.11	2.26
미 국	2.29	1.38	2.07	0.77	1.85	0.71	1.36	0.64
캐 나 다	0.88	0.27	0.82	0.45	0.69	0.38	0.47	0.41
멕 시 코	0.55	-	0.93	0.35	0.94	0.47	0.90	0.10
호 주	1.33	1.29	1.30	0.82	1.26	0.80	1.28	0.92
뉴 질 랜 드	1.09	0.92	0.98	0.49	0.64	0.35	0.57	0.36
태 국	1.24	1.24	1.44	1.04	1.74	1.71	1.77	2.52
말레이지아	1.25	0.65	1.20	0.45	1.38	0.34	1.42	0.36
싱 가 포 르	1.51	1.13	1.53	1.26	1.99	0.67	1.65	1.13
인도네시아	1.03	0.05	2.02	2.45	2.55	0.57	3.35	1.16
필 리 핀	1.62	1.66	3.28	0.68	2.57	0.35	2.26	0.38
부 루 나 이	0.58	0	0.22	0.46	0.13	0.01	0.38	0
P N G	-	-	0.66	0	0.67	0	0.66	0.26
칠 레	1.52	0.09	1.38	0.04	1.72	0	1.57	0.04

[1] 1988년도 수치임.

싱가포르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회원국에 대해 1보다 높아서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입이 세계 평균에 비해 APEC 회원국에 대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수입집중도의 변화 추이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지아가 감소하는 반면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지아 등에 대한 상대적 수입집중도가 낮아지는 반면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에 대한 상대적 수입집중도가 높아짐을 의미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APEC 농산물 무역의 방향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APEC은 경제구조가 다양하고 정치, 역사, 문화 등이 이질적인 동서양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NAFTA, CER, ASEAN 등 소지역블럭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지닌 채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1995년 오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이 확정됨으로써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협력이 논의단계를 마감하고 실행단계로 전환되었다. 오오사카 정상회의는 '행동지침'에 '신축성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APEC 무역·투자자유화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APEC 지역을 유망한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공략하기 위해 보고르 선언에 따라 무역·투자자유화를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완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UR 협정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2004년 이후의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자유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APEC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APEC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서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APEC에서 쟁점이 될 농산물 생산, 소비, 그리고 교역에 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함축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PEC은 전반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도 회원국간에 상당한 이질성과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입장이 국별로 상이하여 '오오사카 선언'에 포함된 '신축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향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축성의 원칙'에 구애받지 말고 미국 등 수출국의 개방압력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고 점진적 자유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APEC은 세계 농산물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아 이들 국가의 생산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PEC 지역의 농산물 소비는 밀과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 호주 등 서구국가에서는 쌀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는 밀과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향상에 따

라 농산물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APEC을 통한 농산물 수출국의 개방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과 호주 등 서구국가에서는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국가에서는 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망한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째, APEC 지역의 농산물 교역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소지역블럭으로 인한 '산업내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무차별 원칙'에 따라 역내 농산물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산업내 무역'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농산물 수출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째, 우리나라의 APEC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교역의존도가 공산품에 비해 높기 때문에 APEC에서 무역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공산품에 비해 농림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집중도의 변화 추이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말레이지아에 대한 상대적 수입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APEC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교역상대국의 중요성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입집중도가 무역자유화와 원활화(동식물 검역, 원산지규정 등)의 추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아직까지 수입이 미미했던 회원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1995. 「'95 APEC 추진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아·태 경제협력의 새 방향」, 정책연구 93-33.

———. 1993. 「아·태 경제협력의 심화방안」, 정책연구 93-40.

———. 1995. 「아·태 경제협력의 신구상」, 정책연구 95-04.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APEC 무역자유화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무공자료 95-3.

세종연구원. 1994. 「APEC의 발전과 한국의 역할」.

손병해. 1988. 「경제통합론」. 법문사.

UNCTAD. 1993. 「국내교역 및 개발통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1995. *Osaka Action Agenda*: 영문관련 자료」.

FAO. 1993/1994. *Production Yearbook*.

———. 1993/1994. *Trade Yearbook*.

USDA. 1994. *Asia and Pacific Rim*.

World Bank. 1993. *The World Bank Atlas*.

IMF. 1995. *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